

## I. 머리말

국제원유가격이 바닥을 모를만큼 계속 떨어지고 있다. 油價하락은 어느 선에서 멈출 것인가.

지난 83년 이후 배럴당 28~29달러선을 유지해오던 국제원유가격은 지난 해 10월 사우디아라비아가 시장점유율확보정책으로 전환하면서 급락하기 시작, 최근에는 한때 「더 이상 떨어질 수 없는 마지노선」으로 여겨지던 배럴당 10달러 이하로 폭락했다. 최근의 원유가격 하락세는 가히 「국제원유가격체제의 붕괴」라고 표현할만 하다.

이에 따라 정부는 최근 국내油價를 평균 10% 추가인하했다. 지난 2월 20일 국내油價를 평균 11.2% 내린 이후 40일만의 추가인하이다. 이로써 국내油價는 올해 들어 소비자가격기준으로 모두 20.8%가 내렸다. 그동안 기름값은 으레 오르는 것으로 알았던 소비자들은 이제 원유가격하

# “10달러 油價시대”의 明暗

## 原油價格하락의 波長과 전망

락의 영향을 피부로 생생하게 느낄 수 있게 되었다.

## II. 국내油價 추가인하

정부는 지난 3월 30일 국내석유류가격을 공장도기준 평균 10.7%, 소비자가격기준 10% 내렸다.

이번 제 2차 국내油價인하는 지난 2월 20일의 1차 인하때와 달리 도입원유價 하락분을 전부 반영하지 않고 상당몫을 떼어내 기술개발투자 및 에너지절약시설자금등으로 돌려쓰도록 한 점이 두드러진다. 그러나 이번 추가인하에서도 산업용 연료인 B-C 油값을 가장 많이 내려 산업의 국제경쟁력을 높일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한 것만은 분명한 사실로 평가된다.

이번 2차 인하의 기준지표가 되는 원유도입단가는 배럴당 18달러34센트로 지난 1차때의 22달러89센트보다 4달러 55센트가 낮아져 일단 15.36%의 인하요인이 생겨났다. 여기에다 ▲국제금리하락에 따른 금융비하락 0.38%, ▲원유수송비절감등 부대비하락 1.95%, ▲환율하락 0.7%, ▲국내精油社의 86년 1월~3월실적 정산에 따른 이익환수분 0.85% 등이 추가돼 모두 19.24%의 인하요인이 나왔다.

이러한 19.24%의 인하요인중 관세인상으로 4.19%, 석유사업기금으로 4.35%를 흡수하고, 이들을 뺀 나머지 10.7%를 가격인하에 반영했다.

결국 전체인하요인을 100으로 볼 때 55.6%를 인하에 썼고, 21.8%를 관세율 인상, 22.6%를 기금확충에 각각 돌린 것이다.

1, 2차를 통틀어 국내油價는 공장도 22.25%, 소비자가격 20.8%가 내렸다.

이번 2차인하에서도 경기를 부추기고 산업경쟁력을 높여 준다는 명목으로 B-C 油의

金 乾 洽  
(大韓石油協會 홍보실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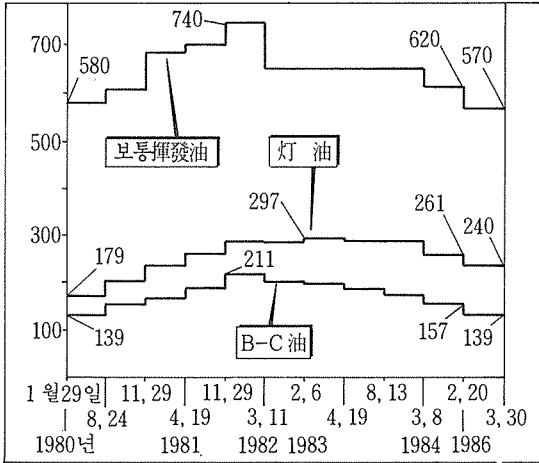
인하폭이 11.75%로 제일 크다. 1차 때와 똑같은 논리가 계속 적용된 셈인데 앞으로 이로 인한 기업들의 추가 이익사용을 정부가 어떻게 잘 유도하고 감독할 것인지 주목되고 있다.

정부는 지난 두차례의 국내油價인하로 국제수지가 9

억달러 개선되고, 경제성장율도 1%의 플러스효과가 있을 것으로 분석하고 있다.

이번 2차인하결과 국내油類가격은 외국과 비교, 상당한 경쟁력을 갖추게 됐다. B-C油는 이제 台灣보다도 4%, 프랑스와 日本보다는 32%, 56%나 싸졌고, 美國에 비

〈그림-1〉 국내 주요油價 추이



〈註〉 소비자가격 기준

〈表-1〉 原油價 하락의 效果分析

	3월이후 23달러	4월부터 18달러 (추가효과)	효과합계
國際収支(億 달러)	4.0	5.0	9.0
(原油代錢 감소)	(6.0)	(6.8)	(13.0)
(海外建設收入 감소등)	(-2.0)	(-1.8)	(-4.0) <sup>1)</sup>
都賣物價(%)	-1.9	-1.3	3.2
經濟成長(%)	0.5	0.5	1.0

註: 1) 國際金利하락에 따른 利子支給 감소(1億달러) 포함

〈資料〉 經濟企劃院

해서만 13% 비싼 수준이다. 灯油와 輕油는 台灣, 日本을 포함한 어느 경쟁국보다 싼값이 됐다. 그러나 높은 특별소비세 및 基金이 부과되는 휘발유와 LPG(액화석유가스)는 台灣, 西獨, 美國등에 비해 여전히 비싼 수준이다.

올들어 두번째로 단행된 국내油價인하로 우리는 국제

〈表-2〉 국제 石油製品 소비자가격 비교

(단위: \$ / B)

		韓 國 (86.3)	日 本 (86.1)	台 灣 (86.3)	프 랑 스 (86.1)	西 獨 (86.1)	美 國 (86.2)
揮 發 油 (보 통)	價 格	102.3	111.4	85.3	105.8	81.1	47.0
	지 수	100	109	83	103	79	46
		(100)	(100)	(77)	(95)	(73)	(42)
灯 油	價 格	43.1	55.0	54.8	-	-	-
	지 수	100	128	127			
		(100)	(118)	(117)			
輕 油	價 格	41.3	77.5	48.7	82.7	81.1	54.2
	지 수	100	188	118	200	196	131
		(100)	(174)	(109)	(186)	(182)	(122)
B - C 油	價 格	25.1	39.3	26.0	33.1	27.1	21.7
	지 수	100	156	104	132	108	87
		(100)	(139)	(50)	(117)	(96)	(77)
L P G (\$ / 톤)	價 格	562.2	1,138	306.5	-	-	176.6
	지 수	100	202	55			31
		(100)	(184)	(50)			(29)
비 고		886 원 / \$	197 ¥ / \$	39.15 NT / \$			

〈註〉 ( )는 종전가격대비 지수임.

〈資料〉 動力資源部

경제환경의 호전을 또 한번 피부로 느끼게 되었다. 국제 원유가격의 급등으로 압축하고 참담했던 현실에 직면했던 70년대를 되돌아 보면 비록 油價인하현상이 고맙고도 다행스럽다는 심정을 갖지 않을 수 없다. 살다가 보면 기회도 만날 수 있고 좋은 일도 생긴다는 평범한 말이 절실히 심정에 와닿는 기분이기도 하다.

### Ⅲ. 최근의 국제原油가격동향

#### 1. 최근동향

국제원유가격이 하락하면서 원유시장의 장래에 대한 전망이 엇갈리고 있다. 배럴당 10달러선을 돌파한 국제원유가격은 12년만의 최저수준을 기록하고 있다. 이같은 원유시장의 불안정은 지난 3월의 OPEC (石油輸出國機構)에서 油價안정에 대한 획기적 방안이 마련되지 못한채 오히려 內紛과 분열의 양상을 노출함으로써 더욱 가속화되는 추세다.

이와 같은 원유가격하락의 배경은 무엇인가. 세계원유시장을 정유공장들이 집중되어 있는 지역으로 大分해 보면, 자유세계에는 3개의 원유시장이 있다. 즉 ① 英國으로부터 프랑스 사이에 걸쳐있는 西歐시장, ② 美國 텍사스주로부터 美國 동부연안에 걸쳐있는 北美시장, ③ 그리고 韓國, 日本등의 極東시장이 그것이다.

이 3대 원유시장에 대해 北海, 아프리카, 美國을 포함한 멕시코灣岸, 그리고 中東등 4개 산유지역에서 원유가 유입되고 있다. 北海의 대표적 유종은 브렌트, 아프리카는 나이지리아라이트, 멕시코灣岸은 WTI (西部 텍사스産 中質油)이다.

물론 수송거리상으로 北海와 아프리카는 西歐와 北美시장에 가깝고, 멕시코灣岸은 北美시장에 인접해 있으며, 中東은 韓國, 日本등 極東시장과는 가까우나, 北美시장과는 상당히 떨어져 있다. 이 중에서 특히 중요한 것은 中東 원유의 높은 생산능력과 낮은 생산비에서 오는 가격경쟁력이다. 사우디원유의 생산비는 배럴당 평균 2달러 이하이며, 생산능력도 하루 1천2백만배럴 이상으로 알려지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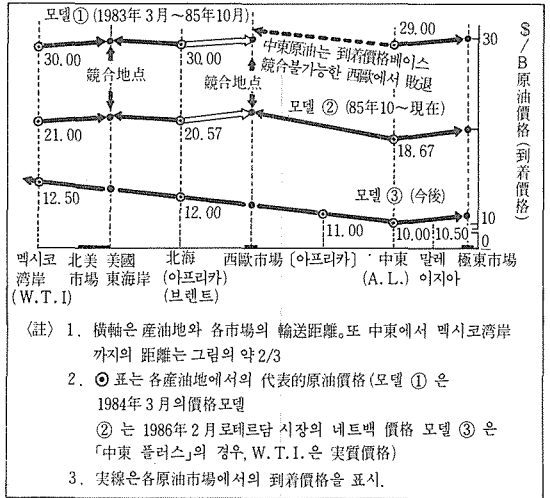
이와같은 국제원유시장구조를 통해 시장점유율경쟁과 원유가격의 향방을 어느 정도 예측할 수 있다.

① 원유의 시장점유율경쟁은 정유공장들이 집중돼 있는 西歐와 北美시장에서 일어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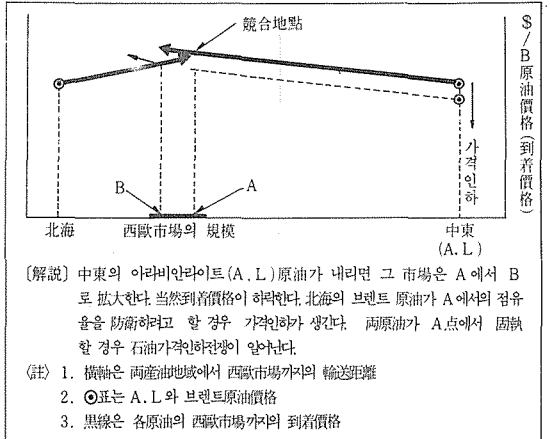
② 이 두시장에서 시장점유율경쟁이 격화될 때 원유가격인하경쟁이 일어난다(그림-2).

③ 시장점유율 경쟁의 深度를 결정하는 것은 경쟁력이 강한 中東 (특히 사우디아라비아) 산유국의 생산·가격정책에 크게 좌우된다.

(그림-2) 국제原油가격체계의 변천



(그림-3) 시장점유율 경쟁이 초래하는 油價戰爭



이런 점을 염두에 두면서 우선 수요가 침체되고 단기적으로 회복될 기미가 보이지 않던 지난 83년 이후 西歐·北美시장의 가격경쟁실태를 검토해 보자.

지난 83년 1월부터 세계적으로 확대된 원유가격하락은 同年 3월 中東산유국들의 5달러 인하로 일단 완결, 국제원유가격은 세계적으로 균일화되었다. 즉 中東·아프리카산유국들의 공식판매가격과 北海·멕시코灣岸지역

산유국들의 실세가격은 거의 배럴당 28~29달러선에서 진정되었다.

이에 따라 前述한 4개지역의 원유는 세계 3대시장의 수송거리에 따라 세계원유시장을 분할했다.北海원유는 西歐의 북부와 北美의 일부, 아프리카원유는 西歐남부와 北美의 일부를 그 시장으로 삼게 되었고, 멕시코灣岸원유는 北美시장의 거의 전지역을 지배하에 두게 되었다.中東원유는 극동시장을 지향했다.

물론 그동안에 원유시장점유율경쟁이 없었던 것은 아니다.北海·아프리카원유와 멕시코灣岸원유는 거의 중간지역인 美國 동해안지역에서 경쟁했고,北海와 아프리카원유는 西歐에서 점유율경쟁을 벌였다(모델 ①)

그러나 이 2개의 시장점유율경쟁은 사우디의 대폭감산과 가격유지정책에 의해 세계적인 원유가격체제의 붕괴는 가져오지 않았다.

최근의 油價전쟁은 지난 해 10월 이후 사우디의 증산과 네트백方式(석유제품의 실세가격에서 정제비와 운임 등을 뺀 가격결정방식)에 의한 가격인하라는 새로운 석유정책에서 발단되고 있다. 사우디의 네트백方式는 西歐시장의 석유제품가격에서 정제·판매비와 원유의 수송비를 빼고 原油의 井戸가격을 산출하는 방법으로 실세가격을 채택한 것이다.

사우디가 네트백方式를 채택한 것은 경쟁유종인 北海·아프리카원유에 비해 항상 2달러 정도 낮은 가격을 매겨 西歐시장을 탈환하고 石油收入을 증대시키려는데 목적이 있다.

이와같은 판매방식은 필연적으로 西歐시장에서 北海, 아프리카, 中東원유의 시장점유율경쟁을 격화시켰다. 사우디의 西歐시장복귀에 따라 유럽정유공장들에 대한 원유판매전이 격화, 우선 도착가격이 무너지기 시작했다. 정유공장들은 석유제품을 싸게 생산·판매하여 결과적으로 석유제품의 가격인하가 가능하게 되었다. 결국 사우디는 시장을 확보했다.

물론 다른 산유국들도 시장점유율을 지키기 위해 뒤따라 油價인하를 단행했다. 그러나 이와같은 유가인하는 또 다시 석유제품가격인하를 가져와 北海·아프리카, 中東원유가격의 유가폭락사태를 초래했다.

## 2. 向後전망

**국제원유가격**이 어디까지 떨어질지는 누구도 짐칠

수 없는 상황이다. 현시점에서 油價결정은 산유국간의 경쟁지속여부에 달려 있다. 경쟁을 중지키로 합의하면 당분간 가격은 안정, 새로운 균형점을 찾게 될 것이다.

그러나 합의가 이뤄지기는 어려울 것으로 전망되며, 만약 합의가 이뤄진다고 해도 지극히 단기적·일시적일 것이다. 상당기간 국제원유가격은 시장경쟁에 의해 배럴당 15달러 내의 수준에서 장기간 머물 것으로 예상된다.

산유량감산에 관한 합의는 ▲OPEC 회원국들만의 감산 ▲OPEC 및 非OPEC 전체산유국들의 감산 ▲사우디와 英國간의 감산합의 등 3가지로 예상할 수 있다. 만약 합의가 이뤄진다면 첫번째 형태일 가능성이 크며 다른 두경우의 가능성은 거의 희박하다.

설령 OPEC 각료회의에서 감산합의가 결정된다해도 이는 공허한 합의에 지나지 않을 것이다. 지난 3년동안의 경험을 통해 OPEC 회원국 스스로가 생산쿼터의 허구성을 잘 알고 있기 때문이다.

결국 원유가격은 시장경쟁을 통해 결정될 수 밖에 없다. 단기적으로는 北海원유생산의 변동비수준인 배럴당 8~10달러까지 하락할 수도 있다. 그러나 이런 현상은 오래 가지 않을 것이며, 北海유전의 생산감소, 석유수요 증가, 계절적 수요변동등으로 쉽사리 15달러선 수준으로 반등할 수도 있을 것이다.

이러한 가운데 원유가격이 15달러 내외가 되면 석유소비절약이 약화되고 代替에너지로의 전환도 중단되기 때문에 원유의 가격경쟁력이 회복될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원유가격이 이 수준까지 내려간다고 해도 그것이 단기적이라고 한다면 석유수요의 회복효과는 기대하기 어려울 것이다.

전문기관들의 예측에 의하면 올해 自由世界の 석유수요는 4천5백만~4천6백만B/D 수준을 유지할 것이며, OPEC 원유 공급은 非OPEC의 협조를 전제로 할 경우, 1천7백만B/D 수준이 될 것이다.

## IV. 맺는말

**마지노線**처럼 보이던 유가 10달러선의 붕괴는 석유시장에 대한 美國의 개입을 불가피하게 만들고 있다. 바닥을 모르는 油價폭락은 美國의 이익에도 부합되지 않을 뿐 아니라 中東정세와 세계경제에도 큰 불안요인이 되고 있기 때문이다.

연간 약 2억배럴의 원유를 전량 수입에 의존하고 있는

〈表 - 3〉 自由世界 石油需給<sup>1)</sup> 추이 및 전망

(單位: 萬B / D)

	1983	1984	1985				1986			
	(OECD)	(OECD)	OECD	WEFA	IEA	DRI	OECD	WEFA	IEA	DRI
消 費										
O E C D	3,390	3,460	3,400	2,933	3,400	3,375	3,370	2,953	3,430	3,378
O P E C	300	320	320	457		368	320	474		372
非 產 油 開 途 國	830	830	840	919	1,160	761	850	937	1,170	763
其 他 <sup>2)</sup>	-60	-20	-30	0		-1	-10	0		-1
計	4,460	4,590	4,530	4,309	4,560	4,505	4,530	4,364	4,600	4,512
供 給										
O E C D	1,600	1,660	1,730	1,705	1,720	...	1,740	1,705	1,730	...
O P E C	1,880	1,890	1,710	1,580	1,720	1,696	1,740	1,618	-	1,732
對 共 產 國 純 輸 入	170	180	170	93		...	170	114		...
其 他 <sup>2)</sup>	810	860	900	931	1,110	...	880	947	1,100	...
計	4,460	4,590	4,530	4,309	4,550	4,222	4,530	4,364	-	4,309

(資料) OECD, OECD Economic Outlook, Dec. 1985.

WEFA, World Economic Outlook, Dec. 1985.

IEA, Oil Market Report, Mar. 1986.

DRI, Review of the U. S. Economy, Dec. 1985.

(註) 1) NGL 포함

2) 在庫 변화, 統計上 불일치 포함.

우리나라는 원유가격이 떨어지면 떨어질수록 직접적인 이득을 얻게 된다. 우선 원유수입대전이 절감되어 국제수지 개선에 크게 기여할 수 있다. 또 물가가 안정되고 세계적인 경기회복에 힘입어 수출이 늘어나며, 경제성장도 높아진다.

그러나 이번의 대외여건 호전은 우리에게만 주어지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모처럼의 기회를 효과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슬기가 요청된다.

현재의 석유정세는 대단히 복잡 미묘하여 앞으로 어떻게 전개될지 예측하기란 극히 어려운 실정이다.

지금까지의 여러 정보를 종합해 보면, 국제원유가격은 금년 여름 이후 현재의 저수준에서 반등될 것으로 보인다. 그 이유로는 첫째 저油價의 최대 피해자는 OPEC 자신이므로 궁극에 가서는 油價 회복을 위해 감산을 하지 않을 수 없을 것이며, 둘째, 금년 여름철 이후 계절적으로 석유수요가 증가할 것이고, 셋째, 非OPEC 산유국 가운데 OPEC에 협조할 나라들이 늘어날 것이며, 넷째, 英國 北海나 美國 알래스카등지에서 한계생산비가 높은 油田의 경제성상실로 공급이 감축될 것이라는 점등을 들 수 있다. 따라서 금년 여름철 이후 국제원유가격은 배럴당 18

달러 전후로 회복될 것으로 보인다.

현재 일반적인 전망은 앞으로 油價가 장기적으로 다시 상승할 것이라는 쪽으로 모아지고 있다. 현실은 정반대로 나타날 수도 있으나, 최소한 그러한 견해가 현재의 일 반론이다. 현재의 油價 하락폭이 크면 클수록 그러한 油價 상승의 幅도 더 커질 수 있다는 논리이다. 이러한 논리는 油價나 他상품시세의 대폭적 변동이 결국 경제적 피해를 초래한다는 사실에 대한 경고이기도 하다.

지난 70년대중의 대폭적인 油價 상승은 세계적으로 엄청난 경제적 손실을 초래했으며, 최근에 와서야 겨우 그 충격으로부터 회복되고 있다. 이러한 충격은 석유소비의 감퇴와 세계경기의 불황을 가져왔으며, 석유산업 자체에는 정제능력과 유조선의 대폭적인 과잉상태를 유발, 그에 따라 엄청난 규모의 투자를 헛되게 하는 결과가 되었다. 90년대에 가서는 이와 유사한 油價 상승의 악순환이 되풀이 될 수도 있다. 많은 석유전문가들이 油價가 현수준에서 안정되어 더 이상의 혼란속에 빠져들지 않는 것이 소비자·산유국 모두에게 득이 될 것이라 결론을 내리는 것도 당연할 것이다. □